

오늘은 2020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지입니다>

1. 주일 오전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없는한 계속 드립니다.
2. 다만, 열이나 기침등 증상이 있으신 성도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염려가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5.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체크, 증상유무확인, 손세정제로 손씻기, 개인마스크 착용 확인등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고, 예배당에서는 가족들은 함께 앉으시고, 가족 아닌 분들과는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6.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당분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려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타교회 성도분들 예배 가능한지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꼭 예배드리러 오실 분은 미리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pastorcho@hanmail.net)

1. 오늘은 결석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합시다.
김광수, 전계현, 김주형, 김수형, 민주, 정하엽, 박용민, 최민지, 명성재, 김상현, 조가람, 김예지, 전명숙, 곽영준, 반다혜, 장주현, 남아주, 김경환, 이영호

오늘 장년 80명, 중고등부 5명, 초등부 12명, 유년부 4명, 유치부 7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6월은 <아이들 학교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땅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아직 코로나 사태에 대해 방심하기 이른 시점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물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고 앉기 등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오전예배 시간에 특송(연주) 순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특송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6. 주중에 5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7. 이번 토요일(6월6일) 오후3시30분, <유일-이다향> 커플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 더채플앳웨스트(02-2692-1121)

8.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8월9일(주일), 15일(토)-16일(주일) 일정으로 계획중입니다.

중고등부는 중등부 방학과 고등부 방학 기간이 서로 달라서 아직 고민중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주일 오후모임 후, 유스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습니다.

10. 이사: 천명재-김선영(우진, 우민, 우빈) 가정 - 옆동으로

11.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